

월간버마

Edit by 양곤팀

MONTHLY MYANMAR

November 01-30 2014

미얀마-양곤 청년들, 라온아띠 다섯 청년의 후끈한 첫 만남



양곤 청년들의 사랑방, '아띠클럽' 오픈 파티 성황리에 마쳐

라온아띠 양곤팀은 11월 1일 양곤 YMCA 강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Attuttu Imagine Club(이하 아띠클럽)의 오픈 파티를 개최하였다...

뒷면에 계속

양곤 청년들의 사랑방, '아띠클럽' 오픈 파티 성황리에 마쳐



라운아띠 미안마팀은 11월 1일 양곤 YMCA 강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Attuttu Imagine Club(이하 아띠클럽)의 오픈 파티를 개최하였다.

이번 파티는 미안마팀이 10월 한 달 동안 준비한 파티로, 아띠클럽의 오픈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목적을 설명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사회는 김정식, 권희설 아띠가 맡았고, 한국어와 미안마어로 진행되었다.

아띠클럽은 YMCA의 5층 도서관에서 양곤 청년들과 매주 모임을 가지면서 죽어가는 도서관 공간을 살리고,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클럽이다. 양곤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다.

김정식 아띠(21)는 “함께 상상하자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은 클럽을 우리가 주도해서 꾸려가는 게 아니라, 양곤 청년들과 함께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이다. 더불어 이곳이 아띠들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모두 25명의 양곤 청년들이 참석했고, 코디 마 산드라와 사무총장 우 따난도 방문하였다. 파티에 참석한 청년들은 YMCA 직원들, KB 한국어 학당에서 알게 된 청년들, YMCA 내에 위치한 Acting School의 청년들, 그리고 홍보를 보고 홀로 찾아온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신태정 아띠(21)는 “아띠들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청년들의 참석이 저조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함께 꾸러가다가, 차츰차츰 참가하는 청년들의 구성을 다양하게 늘릴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석자들끼리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어색함을 풀기위해 먼저 게임이 시작되었다. 미안마팀이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게임. 팀원 중 한명이 몸으로만 특정 단어를 설명하면, 나머지 팀원들이 정답을 맞히는 식이며,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맞히는 팀이 우승하는 게임이다. 네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하였고, 처음엔 쭈뼛쭈뼛 서있던 청년들도 팀별 경쟁이 붙으면서 점점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승팀에게 따로 시상은 없었지만, 꼴찌 팀의 쏘글레이(21)가 무대에 나와 카렌족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띄워주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사회자가 나와 아띠클럽의 의미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데다 준비한 미안마어 가어색했는지 참석자들이 고개를 잠시 가우뚱거렸으나, 한국어가 유창한 KB한국어학당 청년들의 도움으로 이내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였다.

다음은 서로를 더 자세히 알기위해 그림을 그려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현재의 기분, 바라는 미래상, 좋아하는 것,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들이 흰 종이를 채웠고, 그룹별로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되었다. 때 마침 YMCA에서 제공한 간식이 테이블마다 돌아가면서 편히 이야기하기에 더욱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원래 자기소개 시간 다음에 게임이 하나 더 준비되어있었지만, 이야기가 무르익다보니 시간관계상 생략되었다고 한다.

미안마팀은 6시에 공식적인 파티 일정을 마무리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 주 모임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한국어, 한국음악, 한국영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송다정 아띠(25)는 “물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팀원들과의 긴 논의 끝에 ‘한국어’라는 소재를 택했다.

하지만 클럽 운영이 조금 정착되고 양곤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언젠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소재 자체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 ‘한국영화’ 항목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다음 주 모임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파티가 끝나고 미안마팀은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한국식 뒤편이’를 가자고 제안했으나, 여성 참가자들이 난색을 표하여 ‘Black Sky’라는 카페로 이동해 못 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눴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노 뚜자원(19)은 “행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기차고 재미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꼭 참석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미안마팀은 행사가 끝나고 “참가 인원도 딱 적당했고, YMCA의 협조로 파티 진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며 만족스러운 평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지속해서 끌어들이는지, 어떤 내용으로 모임을 채울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요했던 도서관에 조그만 파동을 일으킨 아띠 클럽이 양곤 청년들에게 편안한 사랑방이 되길 기대해본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비싸요 떠레이싸요(동물원)

화창하고 뜨거웠던 11월 16일, 양곤팀 아띠 다섯은 양곤 동물원을 방문하였다. 소중한 일요일까지 포기해가며 아띠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주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4명의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바로 아띠들이 양곤 YMCA 널서리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게 된 널서리 선생님들이시다. 원장 에띠 선생님, 3세 반 뚜자원(이하 오드리), 4세반 띠띠아웅(이하 띠띠) 그리고 원장선생님의 아들 라쿠가 그들이다.

그들은 아침부터 서둘러 동물원에 갔다. 동물들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아띠들이 여럿 있는 팀이라 가는 길부터 그들은 들떠있었다. 하지만 동물원 입구에서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유는 외국인들에게만 두 배가 넘는 입장료를 받는 양곤 동물원에게 반항이라도 하듯 에띠 선생님이 현지인 티켓을 9장 끊어왔기 때문이었다.

노련한 에띠 선생님은 ‘걸리면 그때 모르는 척 하면서 내지’라는 속셈이었으나 순진한 아띠들은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다. 익명성을 위해 누구였는지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현지인의 얼굴을 닮은 운 좋은 2명의 아띠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통과하였다. 나머지 3명은 외국인 티켓을 다시 사야 했다. 입장에 성공한 아띠들은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찾아 나섰다. 미얀마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양곤 동물원은 현재 동물의 수가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수도가 네피도로 이전하면서 그 많던 양곤 동물원의 동물들을 네피도 동물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띠들의 눈에는 정말 볼거리도 즐길 거리도 많은 동물원이었다.

한국과는 달리 정말 넓은 평지에 자연과 조화를 맞추며 잘 만들어졌으며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동물들이 많았다.라고 김정식 아띠는 전했다. 아띠들은 정신없이 동물들을 하루 종일 구경했으며, 동물원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볶음면과 텃밥도 맛보았다고 한다. 덧붙여 김정식 아띠는 낙타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였다며 자랑하였고, 신태정 아띠는 원숭이들의 짹짹기를 목격하였다며 얼굴을 붉혔다.

양곤에 오게 된다면 양곤 동물원을 적극추천한다. 물론 미얀마 사람처럼 생긴 외모를 가졌다면 과감히 현지인 티켓으로 싸게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송다정 기자(djhits1626@hotmail.com)

불타는 학구열의 다섯 아띠들.

매주 토요일 아침 양곤YMCA 513호에서 미얀마어 수업이 열린다. 양곤Y 널서리스쿨의 교사로 임하고 있는 에띠포, 띠띠, 오드리는 미얀마어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하는 다섯 아띠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가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널서리스쿨에서의 인연이 깊어 서로를 엄마,아들,딸로 호칭하고 있었으며 깊은 친근감이 조성되어 있었다. 아띠들은 정규적인 수업 계획이 있기 전까지 그들 스스로 하루마다 그날의 문장과 단어들 선수 학습했으며 소수는 이미 현지어 학구열이 대단하여 3분 이상의 대화가 가능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고 한다.

이에 원장인 에띠포는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없는 똑똑한 아가들”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수업은 수준별 학습에 이어 교과서 위주의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으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등이 있다. 수업의 진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과연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실제 회화에 도움이 될수있을까 의문이 드는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업 커리큘럼 조절이 필요해 보였다.

일상 회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어체’와 인쇄물에서 사용되는 ‘문어체’를 동시에 공부하는 일이란 쉽지만은 않다. 또한 수업 진행 중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영어 뿐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수업 중 서로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할수도 있다. 미얀마어 수업시간을 단순히 공부시간으로 여기느냐, 이야기하고 즐기며 배우는 시간으로 여길 것인가는 아띠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듯 하였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알려지지않은 금빛 역사 속으로

11월 30일. 양곤팀은 서부 다운타운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에 방문했다. 국립 박물관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Museum Yangon이고,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소속 기관이다. 1952년에 세워진 5층 높이의 박물관에는 약 4000점의 유물이 있다. 박물관의 각 층은 2~3개의 전시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들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Ground층에는 미얀마 문자의 발전과정과 19세기 왕조의 유물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다. 1층에는 선사시대관과, 오랜 시간 성쇠를 거듭한 많은 왕조들의 유물관이 있다. 그중에는 미얀마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바간 왕조(10세기~13세기)시기의 것들도 다수 있다. 2층에는 민속예술품 전시관과 전통악기 전시관이 있다. 3층에는 2개의 미얀마 아트갤러리가 있으나, 양곤팀이 방문한 날에는 내부 수리 중이어서 보지 못했다.

아빠들의 흥미를 가장 많이 끌었던 4층에는 수많은 종족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사진, 물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숙소로 돌아온 아빠들은 나눔 시간에 박물관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했다. 백종석 아빠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너무나 모르고 있고, 잘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밝혔다. 신태정 아빠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얀마가 얼마나 크고 역사가 깊은 나라인지 느꼈다.”며 소감을 말했다. 반면 김정식 아빠는 몇몇 전시물들이 에어컨 바로 밑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많은 전시물들과 넓은 동선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몰라 아빠들 대부분이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미얀마도 영국에 의해 많은 유물들을 빼앗겼지만, 독립 이후 계속된 노력으로 반환된 문화재들을 볼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아빠들은 밝혔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미얀마팀 중간평가 차질없이 진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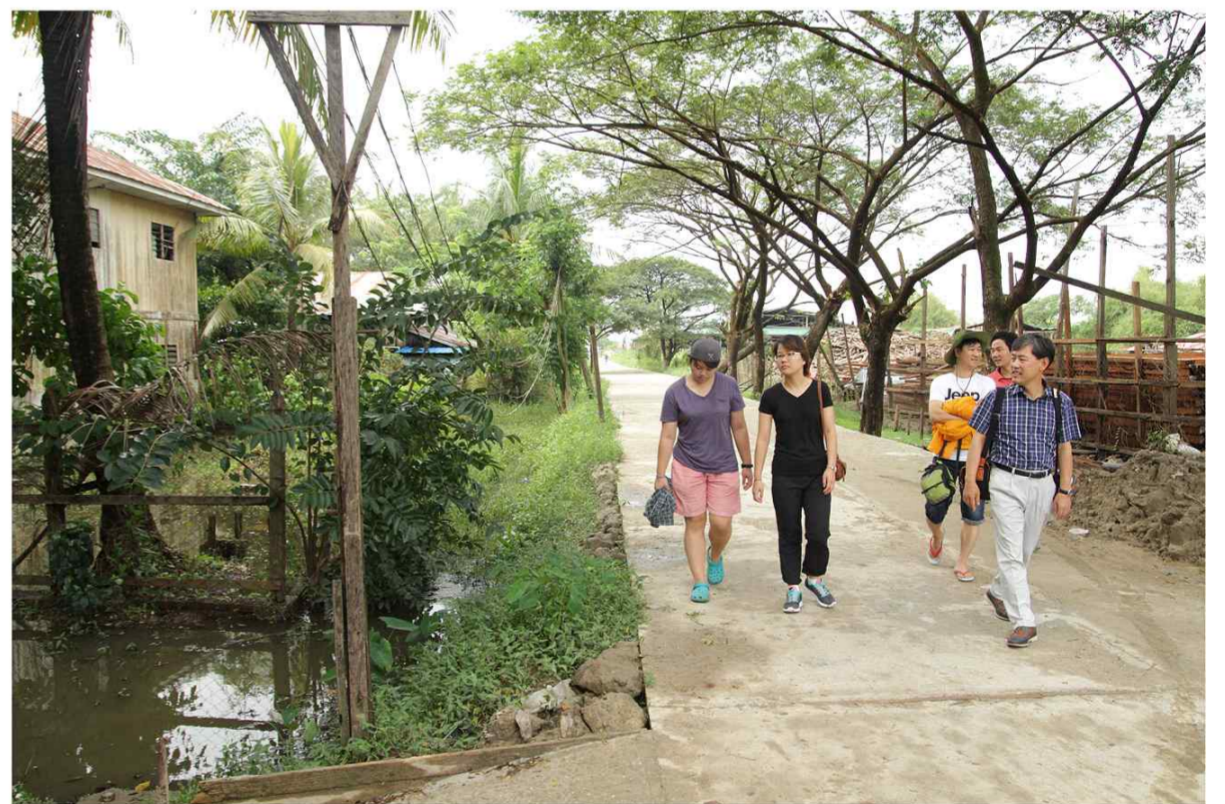
11월 5일부터 11월 7일은 라온아띠 양곤팀의 중간평가 기간이었다. KB국민은행 사회협력부 김지학 차장, 한국YMCA연맹 정선용 재무이사(천안YMCA 총장), 한국YMCA연맹 정동민 간사 그리고 울산YMCA 주은지 간사가 양곤YMCA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짧은 일정과 3일내내 쏟아졌던 양곤 막바지 우기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아빠들은 2곳의 사이트(쉐빠파와 흘랑따야) 방문과 중간평가 발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였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동하는 뱀에서 보내야 했지만 그래도 홍수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쉐빠파를 볼 수 있었고 흘랑따야의 아띠스쿨을 진행하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6일 저녁에는 2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Shwedagon Paya(쉐다곤 사원)을 방문하였다. 이곳이 유일한 관광일정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홀뿌리는 빗물에 반짝이는 쉐다곤은 안개 속에서 더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라고 신태정 아빠는 전했다.

짧고도 길었던 2박 3일을 뒤로하고 7일 저녁 김지학 차장, 정선용 재무이사, 주은지 간사는 한국으로 향했고, 8일 아침 정동민 간사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탑으로서 양곤팀 중간평가는 종료되었다.



송다정 기자(djihits1626@hotmail.com)

[白기자의 여행수첩 엿보기] - 72시간 동안의 방콕

미얀마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70일마다 비자여행을 떠난다. 가장 인기 있는 행선지는 역시 방콕인데, 부담 없는 비용에 꼭 쉬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띠들은 비자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불과 3일 전에 통보받았지만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11월의 몰아치는 일상 속에서 다들 휴식을 갈구하던 참이었다. 이번 여행 동안 코디 마 산드라, 사무총장 우 따난이 아띠들을 챙겨주었고, 산드라가 데려온 세 소녀들(테테, 제제, 뚜뚜)이 동행했다.



놀이공원'은' 재밌었다. - 1일차(11.17 월)

양곤의 상쾌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항으로 출발했다. 전날 잠을 못자 비몽사몽한 채로 NOK Airline의 깜찍한 비행기에 몸을 실자, 1시간 반 만에 우릴 방콕에 데려다주었다. 이웃나라라는 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드림 월드'라는 놀이공원. 해외가 처음인 세 소녀들을 위해 양곤에 없는 곳들을 일정에 포함시킨 모양이었다. 월요일 한낮의 놀이공원은 찌는 듯이 더웠고, 또 매우 한적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이용권 진정 '자유이용권'이 되는 순간 더져갔다. 2시간여의 진통 끝에 도착한 숙소는 주변의 으리으리한 호텔에 비하면 아담한 곳이었지만 피곤한 몸을 누이기에 충분했다. 하루의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방콕에서의 첫날밤이 조금은 허무하게 저물어 갔다.



쇼핑, 쇼핑, 또 쇼핑 - 2일차(11.18 화)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 향한 곳은 Siam역 근처의 커다란 쇼핑몰. 푸드 코트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쇼핑에 나섰다. 방콕에 괜히 쇼핑객들이 몰리는 게 아니었다. 정말 싼 가격에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아이템들이 사방팔방 널려있었고, Sukumvit 거리에만 이런 쇼핑몰이 7~8개는 돼보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쇼핑몰에서는 열정적으로 물건을 탐색하러 다녔지만, 3번째 쇼핑몰부터는 슬슬 지쳐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곤에서 온 4명의 여인들(산드라 외 셋)만은 예외였다. 눈에 일종의 광기를 띤 채, 쇼핑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라져 다시 만날 때는 매번 쇼핑봉투를한 아름 안고 나타났다. 3번째 쇼핑이 끝나자마자, 이 4명의 여인들은 또 다른 일정을 위해 한층 무거워진 짐을 안고 치앙마이로 떠났다.

저녁이 되자 쇼핑몰 앞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야외 바에서는 라이브 음악이 흐르고, 보도에는 야시장이 죽 늘어섰다. 지난겨울에 왔을 때 시위로 시끌시끌하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화롭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우 따난의 추천으로 거리에 늘어선 식당에 앉아 남은 사람들끼리 소박하지만, 훌륭한 만찬을 즐겼다. 아띠들은 식사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고 싶었지만, 우 따난이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카트 4개를 채울 동안 한 번 더 쇼핑몰에 머물러야했다고 한다.

짧지만 달콤했던 일탈 - 3일차(11.19 수)

아침에 오늘도 쇼핑몰에 간다는 일정을 듣고 작은 일탈을 결심했다. 자유 시간을 얻어내서 원하는 곳에 가보기로 한 것. 우따난은 걱정이 살짝 섞인 눈빛이었지만 제안을 선뜻 허락해주었다. 그리하여 필자와 식, 설은 카오산 로드 쪽으로 가보기로 했고 다정, 태정, 우 따난은 또 다른 쇼핑몰에 가보기로 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짐을 싸고점심을 먹고 하다 보니 자유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얼른 보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뚝뚝에 올라탔다. 카오산 로드는 배낭여행자들의 중심지로, 밤에는 북적 북적하지만 우리가 찾아간 낮에는 한적한 편이었다. 밤에 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 멀찍이 있는 왓 포(방콕의 대표적인 사원)와 사진을 찍고, 근처 팜마삿 대학교에 들어가 태국의 캠퍼스 라이프를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출렁룡꾼 왕 박물관까지 둘러보고 돌아왔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일탈이었다고 자축하며 짐을 챙겨 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다시 돌아온 양곤의 밤은 방콕보다 훨씬 어두웠지만, 오히려 더 포근한 느낌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풀며 모두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을 공유했다. 이곳 양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또 다시 실감하는 밤이었다.



필자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 모두 방콕이 처음이었기에, 이번 여행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초 일정에 아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약속시간에 자주 늦게 나타나는 일행들로 인해 팀 내부적으로 불만도 많았다. 72시간의 휴식은 달콤했지만, 방콕을 보기에는 너무도 짧았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닭도리탕의 빛나는 구원



이 글은 사실에 기초하여 쓰였으나 자유로운 필자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만 묘사 및 설명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고향 음식에 대한 갈증은 양곤팀이 쉽게 잠재울 수 없는 괴로움임과 동시에 그 어느때보다도 양곤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매주 반복되는 식단의 단조로움과 응아힝(생선카레)의 냄새로 인해 양곤팀의 식욕불만족도는 바야흐로 상승세였다. 그것은 곧 양곤팀이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길 때가 다가온다는 신호였다.

11월 19일 나눔 시간, 송다정 아씨는 고향음식 중 하나인 '닭도리탕'을 직접 요리해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름이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붉은색에 전율한 다른 4명의 아씨들은 적극적인 찬성과 동참의사를 표했다. 아씨들은 닭도리탕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기대했다.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닭이 죽고 닭도리탕이 탄생했다.

닭도리탕의 탄생 과정에서 양파는 마늘과 더불어 닭의 냄새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미얀마의 양파는 그 모양새가 웅졸하며 맛이 맵싸하기로 명성이 높았다. 따라서 여자 아씨들은 고향 사람들답게 '가위 바위 보'라는 전통적인 게임을 통해 양파 다듬을 사람을 정하기로 했다. '가위 바위 보'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행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단 세 가지의 손가락 모양만을 가지고 3초 만에 참여자들의 승패를 갈라 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순간 남자 아씨들이 부재했던것은, 요리 과정에서 그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다음 '공평하게' 설거지의 의무를 맡도록 하려는 여자 아씨들의 모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료 준비는 남자 아씨들이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계략은 까맣게 모른 채, 뒤늦게 잠에서 깨 여자방 문을 연 김정식 아씨는 "태정이가 울고 있었고, 한구석에는 양파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 단순한 진술보다는 한 차원 깊은 해석을 추구하는 백종석 아씨는 이를 두고 '성스러운 눈물'이라 칭송했다. 그사이에 송다정 아씨는 고추장 양념을 모두 완성하여 닭을 적셔 놓은 상태였다. 바로 이 고추장 양념이 닭도리탕의 탄생에 있어서 핵심이라 일컬어진다.

닭도리탕 탄생 이전에 가장 신성한 존재는 '고추장'이라는 특별한 소스라고 할 수 있다. 고추장의 붉은 색감과 끈적한 질감, 그리고 혀의 통증을 수반하는 매운 맛은 고향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것은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치료하는 약재이기도 했다.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라도 고추장과 함께라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향 사람들은 오랫동안 먼 곳으로 떠나게 될 때 이 소스를 꼭 챙겨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챙기는 고추장의 양은 타지 음식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비례한다. 미얀마에서 다섯 달을 살게 될 아씨들도 예가 아니었다.

이제 아씨들에게 남은 일은 끓는 솥을 지켜보다가 가끔 바닥이 타지 않게 몇 번 휘젓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하이어나처럼 춤을 추며 솥 곁을 맴돌았다. 이는 그들이 고향에서 배운음식에 대한 예우였다. 마침내 그들 앞에 놓인 닭도리탕을 보며 아씨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늘어놓았다. 닭도리탕의 간을 훌륭하게 맞춘 송다정 아씨에게는 더욱 뜨거운 찬사가 쏟아졌다. 음식의 성스러움에 비해 식사 전의 축사는 '잘 먹겠습니다.' 여섯 글자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현지 코디 산드라가 아씨들의 식사 모습을 보며 원래 밥을 먹을 때 말이 별로 없느냐며 놀랐을 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향 음식이 불어넣은 활기 덕분에 아씨들의 입도 무겁지 않았다. 솥이 텅 비었고, 그들의 배는 불렀다. 그리고 빈 접시와 숟가락, 숟가락이 남았다. 백종석 아씨가 묵묵히 빈 접시와 숟가락을 집어들자 권희설 아씨의 눈이 반짝였다. 송다정 아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솥은, 바닥이 타서 물에 조금 불려놓아야 한다는 김정식 아씨의 주장으로 여자방 화장실에 남게 되었다. 닭도리탕이 가져온 구원, 그리고 요리와 설거지에 따르는 작은 계략과 미묘한 긴장. 팀원들과 현장에서 닭도리탕을 해먹을 때 아씨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것이다. 우리 팀은 안 그렇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태풍 '나르기스'가 남기고 간 아기고양이 4마리

쉐빠따 사찰의 주지스님 방에 서식하는 고양이 나르기스(9)가 26일 아기 고양이 4마리를 무사히 출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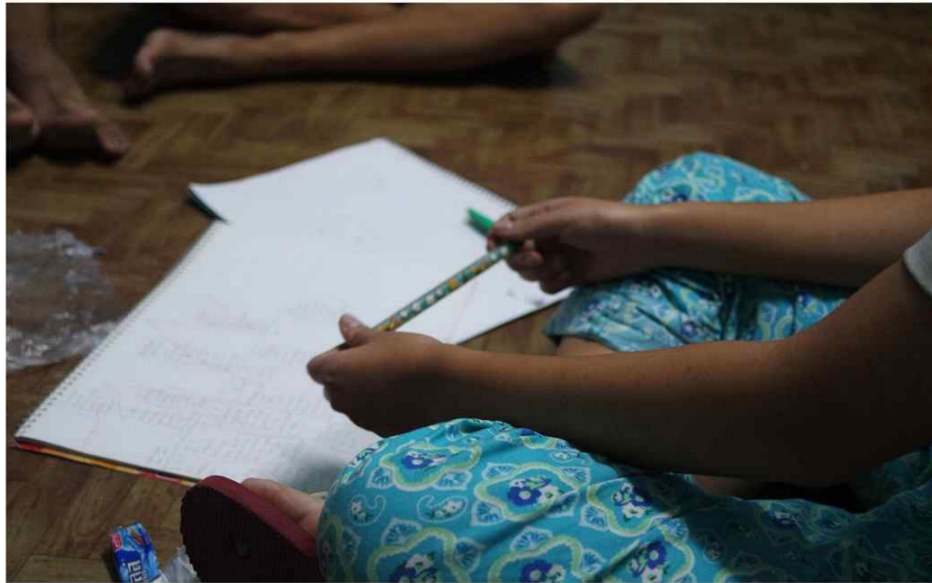
나르기스는 2008년 미얀마 남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이름으로, 태풍이 지나간 직후 사찰에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초 노산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출산 다음날 아씨들이 식사를 할 때 평소처럼 다가와 야옹야옹거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한다. 아기고양이들은 27일 기준으로 7~8cm 크기였으며 산모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아기 고양이를 신기하게 관찰하던 아씨들을 보시고는 한 마리 데려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항상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아씨들은 아쉽지만 고양이를 차마 데려올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쉐빠따에는 새로 탄생한 고양이를 포함해 15마리의 고양이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을 보살피는 게 종교적인 관례인지, 스님의 개인적인 취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지스님이 자상한 표정으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이곳이 고양이들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리라는 것만은 확실해보인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마음을 열어라. 이야기의 장이 열린다.

성격, 취향, 입맛까지도 제 각각인 다섯 아띠들이 부대끼며 살아온지 어언 3개월째 사소하게는 아침식사부터 넓게는 마을활동을 할 때까지 서로의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나의 양 옆에 서있는 팀원들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로에 대해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야기의 장이 열렸다.

11월 23일 나눔이 시작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각인 저녁6시, 아띠들은 인생그래프 그리기 시간을 가졌다. (인생그래프 이야기의 진행과정은 이렇다. 본인이 태어난 0세부터 현재 자신의 나이까지 주요했던 사건들을 강점으로 그래프를 만든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본인의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이야기를 경청한다.)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이야기의 장은 가벼운 분위기에서 출발해 곧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눔 분위기 산만하기로 유명한 그들이 무슨 일인지 이 시간에는 모두가 한 사람마다의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다섯 개의 인생그래프는 하나씩 제 각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몇 시간 후에는 곧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 냈다. 이에 권희설 아띠는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리여서 편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팀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형식의 자리를 자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만들어낸 자발적인 이야기 장의 자리는 아띠들을 몸보다 마음이 가까워지게 만들었으며, 예상외로 호응이 좋아 인생그래프 그리기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울지마 엉덩아” “뿌우웅...”

김정식 아띠가 많이 아팠었다. 장염에 걸려 며칠째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김정식 아띠를 위해 11월 23일, 필자는 닭죽을 끓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 그랬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굳이 아픈 김정식 아띠를 이끌고 마트를 향했다. 튼실한 닭도 사고 이것저것 야채도 샀다. 아프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정식 아띠는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현기증을 느꼈다고 했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정식 아띠를 침대에 눕히고 필자는 닭을 손질하고(실사 환자를 위해 모든 껍질과 비계를 제거했다) 야채를 다듬었다. 그리고는 Y 간이부엌 한켠에서 닭을 삶기 시작했다.

에어컨도 없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작은 간이부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욕수에 등등 떠다니는 잡거품들을 걸어냈다. 그런 필자를 지켜보던 베이비언니(Y스태프)는 어디선가 작은 선풍기를 구해와 틀어주었다. 욕수가 적당히 뽀얗지자 다져놓은 야채를 넣었다. 소화기관이 약해졌을 정식 아띠를 걱정해 야채를 한참 끓이다가 밥도 넣고 또다시 한참을 끓였다.야채가 문드러지기 일보직전까지 끓여 소화엔 부담 없는 닭죽을 완성했다.

손이 큰 필자는 정식 아띠를 위해 닭죽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결국 한 솥이 완성되었고 다섯 아띠들은 며칠은 굶은 양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먹는 데만 집중했다. 이에 신태정 아띠는 ‘태어나서 그런 죽은 처음 먹었다, 자주 아파야겠다.(웃음)’라고 하였고 백종식 아띠는 ‘우리 엄마 죽도 참 맛있는데 누나꺼가 더 맛있어.’라는 망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정식 아띠는 ‘누나가 만든 죽 덕분에 며칠간 울던 엉덩이가 기적적으로 울음을 그쳤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다음 날, 김정식 아띠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타지에서 몸이 아픈 건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게다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는지라 타지에서 접할 수 없는 고향의 맛이 더더욱 그리기 마련이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힘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고향의 음식이 주는 마음의 위로에 비할쏘냐. 집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보잘 것 없는 요리 실력이지만, 그래도 아플 때만큼이라도 더 서럽지 않게 음식에서라도 고향과 가족을 느꼈으면 했던 필자는 닭죽을 끓이며 작은 소원을 빌었었다. 다들 집에 무사히 돌아가는 날까지 건강하길.

송다정 기자(djhits1626@hotmail.com)



50번가는 50번가다

양곤의 젊음과 식도락은 19번가(세꼬랑)가 책임진다고 말한다면, 잔잔한 분위기와 퀄리티 있는 음악을 즐기는데에는 50번가가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50번가에 있는 50번가(50th street)는 가격대에 있어서 19번가보다 3배정도 비싼 반면에 웨스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주로 저녁 식사와 칵테일류의 메뉴로 구성된 이 가게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 중 첫째는 건물의 인테리어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전형적인 외국 호프를 본 따온 느낌을 준다. 건물의 구성으로 기본 BAR와 작은 테이블과 큰 테이블 50여개(1,2층), 그리고 은은한 주황색 조명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혹한다.

둘째는 음식인데 피자와 파스타, 칵테일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들이 입맛을 다시게 한다. (피자류:7000~9000짖/ 파스타 6000~9000짖/ 그 외 6000~20000짖 으로 구성)

세 번째로는 웨이터들의 영어실력이다. 웨이터들의 영어실력이 워낙 뛰어나 주문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손님들과 영어로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니 필자는 너무 부럽다. 네 번째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저녁9시에 열리는 작은 콘서트이다. 양곤에 거주하는 아티스트들이 여행자들의 취기에 아름다운 선율을 더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가격대가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는 저렴하고 맛있는 세꼬랑이나 길거리 음식점에서 해결을 한 후에 50번가에서 음료로 입가심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50번가에서의 팁을 몇 가지 적어보자면 미얀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경우에 에스프레소 싱글샷을 주문한 뒤 얼음 잔을 받아 섞어 마시는 것이 맛이 아주 좋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파스타와 피자가격을 30~40%정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이 있는 수요일 9시를 적극 추천해본다. 역시 50번가는 50번가다.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먹고 마시고 살찌는 19번가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젊음이들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있다.

“세꼬랑”(19번가)이 바로 그곳이다. 이 거리는 한 골목을 통째로 식당과 주점으로 가득 채운 곳이기 때문에 양곤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대부분의 음식점들 앞에는 꼬치구이 가판대가 늘어서 있으며 식당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불러 세우는 모습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웬만하면 길거리 음식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책자 중 하나인 ‘론리 플래닛’에서도 길거리 꼬치는 위험하다고 할 정도이며, 필자의 팀원 중 여럿이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장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하지만 본인의 장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맛은 가격대비 원더풀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뽑은 19번가의 명물이 있다면 당연히 19번가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19번가에는 점포 이름이 19번가라는 칵테일 주점이 있다. 이곳은 간단하게 요거거리를 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4분의 1정도의 가격에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 가게의 분위기 또한 주변의 가게와 달리 은은한 주황조명과 뜬금없는 재즈나 팝음악에 은은하게 흘러나오니 동료들과 수다를 떨거나 식사 후에 입가심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과감히 주장해본다. 만약 양곤에 도착하였는데 저녁에 어디를 갈지 전혀 모르겠다면, 혹은 계획이 없다면 택시를 잡고 “세꼬랑 따친대 흐니타웅 알라?”(19번가 가고 싶어요. 2000원에 갑시다!)를 외쳐보라. 배는 무거워지고 지갑 또한 가벼워지지 않는 신기한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다. 세꼬랑은 밤의 골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세꼬랑은 해가 질 무렵, 혹은 해가지고 한두 시간 후에 가도록하자.. 이곳의 네온사인은 해가 진 다음에야 우리에게 인사하기 때문이다.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신비로운 기차여행

미얀마 기차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 첫 번째로, 기차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불분명하다. 예정되어 있는 시간보다 기차가 20분 이상 늦게 오기도, 일찍 오기도 한다. 이는 당일의 기차상태, 선로상의 문제, 날씨 등의 복합적인 결과이니 만약 당신이 기차를 탄다면 제 시간보다 30분 일찍 역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로는 기차역, 열차 내에서 비공식적 장사가 가능하다. 기차역 내에는 소규모 시장이 열린다. 과일을 파는 사람부터 식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열차가 역내로 들어오면 몇몇 장사꾼들은 열차 안으로 들어와 간식거리와 신문을 팔기 시작한다.

승무원이 티켓확인을 위해 열차 안을 서성거리면 장사꾼들은 트랜스포머의 자동차가 변신하듯 판매하는 물건들을 평범한 짐가방으로 변신시키기도 하고, 물건거래를 하는 도중 열차가 출발하면 쿨하게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기도 한다.



아띠들은 매주 목요일 왕복 네 시간씩 교통수단으로 기차를 이용하고 있다. 기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다양한 헤프닝 또한 많다고 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 '자리는 찻이 제 맛이죠.' -송다정 아띠

"기차를 처음 탔던 날 역방향 좌석에 앉아 땀을 엄청나게 흘렸던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순방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미얀마 아줌마들을 보며 터득한 기술이 있다. 창문 밖에서 좌석을 향해 가방 던지기 및 우산을 던져 자리 찻해놓기. 이제는 내 자리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자리까지 정해주고 있다. 스스로 기차타는 것을 조금씩 즐기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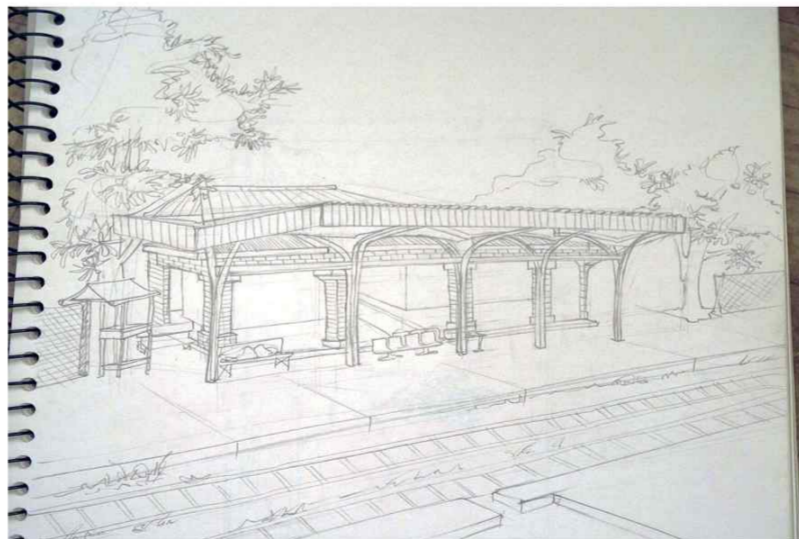
두 번째 에피소드. '차라리 같이 사진찍자.' -신태정 아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기차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멀리에서부터 어떤 남자분의 시선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평소에도 미얀마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 일이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보고 있던 남자분과 친구들이 몰려와 텅 빈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자리를 꽉 채워 앉았다. 나는 잔뜩 긴장하고 그들과 기 싸움을 계속했다. 후에 잠깐 졸다가 눈을 떴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으로 내 얼굴을 찍고 있었다. 당시에는 아닐거야 하고 무시해 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기분이 나쁘다.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차라리 우리 셀카나 같이 찍을까요?' 말을 건네야 겠다."

세 번째 에피소드. '저 미얀마 말 못해요.' -권희설 아띠

"어느 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저씨가 나에게 작은 소책자를 한권 주신 적이 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으라며 건네주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다. 온통 미얀마어가 적혀있는 책이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장 넘겨보기는 했다. 내릴 때 줌 되었을 때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아저씨가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 본의 아니게 책이 한권 생긴 것이다. 또 한 번은 어떤분께서 나에게 말을 건적이 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서 '저 미얀마 말 못해요.' 하고 대답했다. 두 번째로 그분이 또 말을 거셨다. 그때는 알아들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라고 하셨다. 다행히 당일 날 공부했던 '목요일이에요.' 라는 문장이 기억이나 짧은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다. 현지인인줄 알고 오인 받을때마다 기분은 좋다. 내가 정말 미얀마사람 이 다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든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달이 차오른다, 가자.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를 꼽으라면 새해를 맞아 서로에게 축복을 빌며 물을 뿌리는 떤잔(4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미얀마에는 인구의 89%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에게 중요한 큰 축제가 두 가지 더 있다. 드딩조라삐 축제(10월, 이하 드딩조 축제)와 다자웅몽라삐(11월, 이하 다자웅몽 축제) 축제다. ‘드딩조’와 ‘다자웅몽’은 4월이 첫 번째 달인 미얀마 달력을 기준으로 각각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달의 이름이다. ‘라삐’는 미얀마어로 보름달이라는 뜻이다. 즉, 두 축제는 이름 그대로 드딩조와 다자웅몽달의 보름달이 뜨는 날에 열린다.

올해 드딩조라삐와 다자웅몽라삐는 10월 8일과 11월 6일이었다. 드딩조 축제는 보름달이 뜨는 날과 그 전후로 1일씩 3일간 지속된다. 축제 때가 되면 사람들은 창문 안팎과 발코니를 색색깔의 작은 전구들과 촛불들로 장식한다. 미얀마 불교 신앙에 따르면, 드딩조달의 보름달 밤 부처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밤길을 밝히

는 것이다. 이날 사람들은 가족·친척들과 꽤야(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스님이나 사원에 공양을 드린다. 해가 지면 거리 축제가 열린다. 차량이 통제되고 먹을거리와 공예품을 파는 수많은 상인들과 구경 나온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운다. 꽤야 주변에서는 불꽃이 쉼 없이 터져 하늘을 수놓고, 사람들이 띄워 올리는 풍등이 꾸준히 떠올라 아름다운 밤풍경을 이룬다.

다자웅몽 축제 기간에는 보름달이 뜨기 전날 밤과 보름달이 뜨는 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스님들이 쉬지 않고 베틀을 밝아 새로운 승복을 짓는 의례를 행한다. 부처의 어머니인 마야가 그를 위해 밤새도록 승복을 지은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쉼다곤 꽤야의 의례는 특히 유명해서 무수히 많은 불교도들이 꽤야를 찾아온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사람들이 길가에 부스를 설치해 특정 사찰의 이름과 그곳 스님들의 사진을 걸고 공식적으로 모금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축제 전에는 그런 장면들이 더욱 빈번해진다.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신나는 음악을 틀고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서 모금을 받는다. 사자 탈 같은 것을 쓴 사람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건물 입구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게 모금을 한 뒤 축제 당일 사람들은 스님께 현금으로 혹은 세제나 비누 등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공양을 드린다. 그러나 이 모금액이 오로지 사찰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사찰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을 마련한다. 다자웅몽 축제 당일 쉼빠따의 사찰학교에 방문한 아띠들도 푸짐한 점심상을 대접받았었다.

미얀마의 불교 축제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나라의 축제들이 동반하는 화려한 퍼레이드와 격정적인 즐거움으로부터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즐거움은 공양을 드리는 마음속에 있어서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시간약속에 대한 애매한 문제들

11월 말쯤, 아띠들은 그들의 현지 코디네이터 산드라와 진지하고도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필자는 여자 아띠중의 일원임을 밝히며, 조금의 감정이 섞인 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련 사건들로 인해서 아띠들은 산드라와 시간약속에 대한 불편함이 쌓여가고 있었으며, 이하 사건들은 사건별로 나열한 것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사건.

아띠들은 산드라와 활동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다. 먼저 산드라에게 전화를 건다. 양곤YMCA에서 가장 바쁜 듯한 산드라에게 언제쯤 시간이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약속시간을 잡는다. 통화는 항상 약속 시간쯤에 전화를 다시 걸어주겠다는 말로 끝이 난다. 10번 중에 3번은 약속한 시간에 산드라가 다시 전화를 주어서 미팅을 하게 되지만 7번은 전화가 오지 않아 아띠들은 하염없이 방에서 기다린다. 산드라는 바쁘니까, 아띠들은 1시간쯤은 여유롭게 기다린다.

기다리다가 다시 산드라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서 지금 밖에서 일을 보고 있다며 미팅시간은 자연스럽게 다음날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예 미팅시간이 다음날로 미뤄지면 아띠들은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한다. 마트도 다녀오고 산책도 다녀오고. 하지만 전화를 아예 받지 않으면 아띠들은 행여나 산드라가 왔는데 아띠들이 숙소에 없어서 미팅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는다.

두 번째 사건. 아띠들과 산드라는 11월 15일 날, 함께 방콕으로 비자트립을 떠나게 되었다. 첫 날, 그들은 드림월드(방콕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고, 1시에 지도상에 21번인 뷔페식 식당에서 모이자는 약속을 남기고 다들 각기 흩어져서 구경하고 놀기 시작했다. 여자 아띠들은 5분전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약속시간이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방콕에서는 핸드폰도 없었을 뿐더러 예약티켓이 없으면 입장조차 불가능한 식당이어서 여자 아띠들은 더운 방콕의 열기를 견디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여분이 더 지나고 남자 아띠들은 헬레벌떡 도착했으나 그들 역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함께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린지 30여분이 되었을 무렵, 산드라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르고 옆에 다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건.

다음날은 다들 방콕 쇼핑을 갔었다. 각기 쇼핑의 취향이 다르므로 흩어져서 쇼핑을 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6시에 MBK몰 일층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다. 여러 쇼핑몰들과 백화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구경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역시나 여자 아띠들은 5분전에 도착해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씩 먹고 있었고, 남자 아띠들은 정시에 도착해 역시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25분 뒤, 산드라는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헬레벌떡 도착해 옆에 다른 맥도날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띠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반복적으로 약속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약속시간이 넘어도 연락을 주지 않는 점 그리고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약속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띠들에게는 약속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타당한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아띠들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설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들에 아띠들은 지쳐갔다.

혹 타인과의 시간약속에 대한 개념자체가 한국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혹 그들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해도, 늦어도 늦는다고 연락을 하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는 문화는 아닐까. 아띠들은 이 화두를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아띠들의 답답함은 문화차이라는 이유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쌓여갔고, 더 감정이 상하기 전에 산드라와 이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양곤Y 총장 우따난의 오른팔인 그녀는 우따난의 스케줄에 모든 것을 맞추며 일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다른 약속들은 조금 유동적으로 약속시간을 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시간 앞에 'round about'을 붙이고 거의 모든 통화는 'I'll call you when I get to YMCA.'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산드라와 아띠들의 관계는 항상 비교적 양호했다. 언젠가부터 '엄마', '딸', '아들' 등의 호칭을 쓰며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아띠들의 설명이 시작되자 산드라는 많이 당황해 보였다.

사실 활동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관계와 감정에 대한 문제를 아띠들이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결국 산드라는 다음부터 아띠들과의 시간약속을 더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답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산드라는 이제 우리에게 자신이 Y에 도착할 예상시간을 말할 때, 실제 예상시간보다 2시간정도 늦춰서 말한다. 그리고 회의에 늦은 적은 아직 한번도 없다.

송다정 기자(djhits1626@hotmail.com)

활동 사이트 4곳 → 2곳 → 3곳 변경한 사연 나는, 왜, 여기에?

양곤팀은 월요일에 양곤Y 널서리스쿨, 화요일에 북오갈라바Y 널서리스쿨, 수요일과 금요일에 흘랑따야Y 널서리스쿨과 애프터스쿨, 목요일에 쉐빠따 띠이밍글라사평따익(주지스님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2달 반 정도를 활동해 왔다. 활동의 중반에 접어들어, 양곤팀은 4곳의 사이트들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의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양곤Y 널서리스쿨을 제외한 3곳의 사이트에서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과 그에 대한 아띠들의 생각을 필자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지면상의 한계로 여기에서는 필자가 편집한 바를 보도한다. 인터뷰 전문은 가장 마지막 면에 별도로 실었다. 정제된 목소리를 참을 수 없는(!) 독자들께서는 뒷면으로 달려가길 권한다. 또한 인터뷰어로서의 필자는 아띠들과 독자들의 중간에 서서 인터뷰를 진행한 점을 알린다.

Q. 활동을 시작한 9월, 4곳의 사이트들에 다니기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곳이라는 사이트의 수는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석) 첫 팀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번 가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도를 해보는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4곳의 사이트를 모두 가는 것에 어떠한 강점과 한계점이 있나요?

(다정) 사이트별로 다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같은 널서리스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게 비교되기도 했고, 환경부터 아이들이 받는 교육, 교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뭘 깔고 자는지부터 너무 다 달라서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고, (사이트가) 너무 멀다보니까 사실 가는 데 지치고 가서 (활동) 좀 하면 더 지치고 ... (중략) ... 집에 오면 다음날 할 거 짜야하니까 항상 좋았던 것들이 밀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한 달이 지나가니까 (사이트당) 4번만 하면 다 지나가거든요.

Q. 다른 팀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활동 사이트가 2~3곳 이상인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양곤팀이 사이트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석)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마을을 너무 못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흘랑따야, 쉐빠따) 이틀 이틀 가고, 양곤 널서리나 북오갈라바는 우리가 빠져도 지장이 없 겠다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태정) 꾸준한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때였어요. 마을을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Q. 처음의 결정은 조금 전 말씀해주셨다시피 흘랑따야 이틀, 쉐빠따 이틀씩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다정) 거기서 허락을 받았어요. 쉐빠따에서 클리닉을 안 쓰니까 거기를 써도 된다고. 그러면 낮에 학교를 안 간다거나 하는 청년들을, 만약 만날 수 있고 모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죠. 자리가 있으니까 일단 왔다갔다 하면서 재미있을 것 같았고. ... (중략) ... (마오갈라바에서) 한다면 널서리 스쿨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간 공간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그렇죠... 역시나 우리가 클래스를 여는 느낌. 친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공간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종석) 그거는 좀 주관적인 걸 수 있는데, 쉐빠따는 마을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마을 사람들이 되게 친근하게 해주거든요. 되게 먼저 인사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마오갈라바는 물론 친근하게 해주시는 분은 있지만은 양곤 걸어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다운타운, 도시 같은.

(정식) 쉐빠따가 방금 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하고 만날 때 더 즐거운 거리가 있었고, 같이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대해줄 때 서로 재미있었고. 마오갈라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아이들을 베이스로 해서 아이들 학부모 만나야 하는 반면, 쉐빠따는 학교 바로 나가서 인사하면 만나지는 거고. 그렇죠.

(다정) 사실 마오갈라바는 한 번 걸어보면 느끼겠지만 다 집이 크고 울타리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길거리에 앉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쉐빠따는 길가에 사람들이 많고요.

Q. 양곤팀의 활동 목적과 마을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다정) 저희는 첫째 팀이니까요. 저희를 (마을에) 알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사이트가 어디든간에 가서 뭘 가를 누구와 하려면 우리를 알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단계라서요.

(종석) 마을 주민이 돼서 살아본다는 게 활동의 지향점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약간 바람,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마을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게 있고. 그게 안 되니까 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정식) 저는 마을 주민처럼 살고 싶다는 거는 한 달 쯤 지난 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9월은 돌아다니기만 하고, 양곤에서는 저희가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보는 직원들이랑 인사하는 정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어딜 가도 좋으니 마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태정) 저도 환상이 있었지요.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저는 한 번 떨어졌었기 때문에 (웃음). 어차피 여기 미안마에 오게 된 거 더 많은 사람 만나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는 양곤Y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 마을로 가야 한단 말이죠. 한계를 느낀 거죠. 라온아띠 프로그램에 대한 환상도 채우고 싶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식)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했던 이유는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Q. 마오갈라바를 선호한 아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아띠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결정과 어떻게 타협했는지요.

(다정) (웃음) 사실, 마오갈라바를 더 가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사이트 하나를 뺀다는 게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게, 마을도 만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이미 아이들과 너무 정이 들어버린 상황이었고, 사실 그게 가장 컸어요. ... (중략) ... 그랬음에도 팀원들의 의견을 따랐던 이유는 분명히 저들이 했던 말들을 저도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마을도 더 보고 싶었고, 그러기에는 쉼베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뭐 어느 한 군데가 나쁜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기울었던 것뿐인데, 그게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지 혼돈도 왔었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항상 플렉서블하니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Q. 최근에 사이트를 마오갈라바 1일, 쉼베따 1일로 재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석) 시간에 비해서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안 보였어요. 기차를 9시에 타면 12시쯤 쉼베따에 도착하고 이제 밴이 (화요일에는) 안 오니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적어도 3시 반? 3시 그쯤에는 쉼베따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1월은 약간 그 빠지는 것도 많으니까 한 달 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리고 마오갈라바를 너무 후다닥 나왔다는 찝찝함. 저는 그 두 가지였습시다.

(태정) 마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책을 만들든 맵핑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화요일에 함께 걸은 게 처음이었는데 마을이 몇 개가 있고, 집이 몇 개 있고, 이런 거를 그때 알았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더 답이 없었어요.

인터뷰 끝 무렵, 아띠들은 쉼베따에 대한 아쉬움과 희망을 2기에 대한 바람으로 전했다. 그리고 쉼베따행 기차를 위한 작은 충고를 덧붙였다.

(다정) 적극적으로 다음 기수에게 권합니다.(웃음) 해보세요. 사실 기차도 타다보면 꽤 낭만적이라는. 처음에 기차타고 기겁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종석) 엉덩이에 뽕 들어간 자전거 수트 챙기면 좋겠다.

(정식) 아니면 할머니들이 쓰시는 엉덩이 벽돌 방석을 가져오라고.

(다정) 그게 뭐야?

(정식) 이렇게 탁 (앉아서) 농사짓다가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소. 그러면 (방석이 엉덩이에) 붙어 있는 것이요. 벨트처럼 차는 것이요. 아 그리고 기차 탈 때 베개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소. 땀에 젖 베개에서 냄새가 나오.

(종석) 그래서 우리 방 베개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활동고민 of 미얀마

11월 까지 3개월, 미얀마의 5인은 '양곤'을 비롯하여 '홀랑파이야', '마 오끌라바', '쉐삐따'에 파견형식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파견형식이라 함은 활동 사이트에 거주하지 않으며 활동당일에만 방문하기 때문이다). 활동이 파견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인해 발생하는 장 단점들을 정리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생활적인 면들이나 양곤YMCA와의 소통에 관한 문제 또한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고민들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HT - 아피스쿨 - 새로운 그룹의 등장

홀랑파이야(줄여서 HT)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면, 아피들은 10월부터 아피스쿨을 개설하였다(아피스쿨에 대한 기사는 월간버마 10월호를 참고). 매주 금요일마다 미술수업과 한국어 수업들을 순조롭게 진행 해오고 있지만 약간의 고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피스쿨은 HT-YMCA클리닉을 중심으로 근처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참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1월 초부터 새로운 그룹의 아이들이 아피스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새로 등장한 그룹의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아피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피들은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피들을 살갑게 대해주는 모습에 놀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들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등장한 이후로 기존에 참여하던 아이들의 참여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그룹의 아이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피들에게 관심을 요구하였다. 관심을 바라는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만, 아피들과 기존의 참여하던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제멋대로 행동 하려는 태도, 카메라를 만질 때 새로운 친구들만 사용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건네지 않는 모습, 활동중에 과하게 힘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만약 아피들이 그들을 적당히 제재 할 수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5명의 아피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다루는 노하우 뿐만아니라 언어적인 문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아피스쿨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피들과의 대화 중에 오해가 생겼는지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이후로 기존의 참여하지 않던 아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 그룹의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었다. 아피스쿨의 참여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으며, 만일 참여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논의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그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참여한다면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아이들과의 탄탄한 유대감과 프로그램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기존의 아이들과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어디까지 한정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르는 영향들을 비롯한 2차적인 논의 주제들이 등장하였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MO

마 오끌라바는 사이트에서 배제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사이트 자체만 바라보자면 아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널서리 스쿨의 아이들만큼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이 들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순간 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적응을 해버렸고, 그것에 대하여 아피들은 스스로 걱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적응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피들은 마 오끌라바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논의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수면위로 부각되지 않기 시작했으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1,12페이지 기사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 오끌라바는 아피들에게 가장 편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했다. 널서리스쿨의 집국은 아이들에 대한 고민조차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들의 아피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다.

많은 고민들과 논의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곳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선물로 받은 곳이기도 하기에 아피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곳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피들이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 곳에서 겪은 아이들과의 엄청난 고통과 애정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감히 상상해 본다.

아웃쫂민아 고마워. 네 덕분에 극한을 맛보게 되었다. 사랑 한다 아가야.

ST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끼는 것 또한 빠질 수 없는 고민일 것이다. 쉐삐따는 장장 5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심지어 쉐삐따에 가는 아침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마저 알뜰하게 보이는 감정까지 들 정도이니 말이다. 또한 너무나 바쁜 일정들 때문에 가기 전날 혹은 이틀전에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또한 상당한 피로감을 선사한다. 그러나 막상 쉐삐따 사찰학교에 도착하여 수업을 할 때에는 아이들의 집중과 관심이주는 행복이 피로감을 잊게 만든다. 이곳의 아이들은 미술이나 체육수업이 따로 마련 되어있지 않고, 6,7세 유아부터 10세를 웃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체능 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업들이 그 시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임을 학교 선생님들 또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쾌히 수업시간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은 수업시간을 제한 시간에 아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은 것이었다. 아침에 출발하여 쉐삐따에 도착하면 12시, 아이들은 정규 수업을 듣고 있으며 아피들의 수업시간은 오후 1시40분부터 진행되고 그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하교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수업을 배제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사찰 안에서만 활동이 국한된다는 것이 아피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아쉬움들을 해결하고자 마 오피라바를 사이트에서 제외하고 쉐빠따를 2번 방문하여 마을 안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아띠들의 입지를 넓힐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3달이 지난 지금 마을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는 것은 아띠와 주민들에게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아무것도 만들어 낼 생각 없이 마을에 접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마 오피라바를 제외 하면서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밖, 마을에서의 활동은 보다 시간이 흐른 뒤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목요일 하루만 방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권희설 기자 인터뷰 11페이지 참고)

쉐빠따 사이트에 대한 고민은 일단 여기서 일단락 지어졌으나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상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달부터 4학년은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력평가(고등학교 입학시험)와 같은 형식으로 상위 학교를 진학하는 데 필요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1명의 아띠가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때문에 한명은 수업보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수업내용과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모든 아띠들의 수업진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식들이 존재했다. 물론 연령대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학년의 예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반을 담당했던 아띠는 학급 전체를 동시에 집중하게 만들기보다, 앞쪽에서 집중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뒤쪽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은 수업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 자발적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하나의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두가지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반면에 저학년을 수업할 경우 수업보조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1명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역할을 분담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프로그램 대상자나 진행자에게 모두 효과적인 것 또한 실감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대상자의 흥미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흥미가 없으면 집중을 하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집중을 시키는 방식에 대한 스킬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의 경우 알파벳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알파벳과 연관된 동물그림들을 그리면서 수업을 할 경우 수업의 집중도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 - ANT, B - BULL과 같이 동물을 그리면서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면서 단어를 가르치는 경우 아이들의 이목이 쏠리며, 가르치는 수업만이 아닌 그 동물을 이곳 언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띠들까지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서로 배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던 좋은 예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하지만 그 안에서마저 아띠들과 아이들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쉐빠따 또한 고민과 동시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아띠들은 이야기 한다.

아띠클럽

11월1일부터 개설된 아띠클럽은 현재까지 별탈없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급반의 경우 기초 한국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고급반은 주제를 정하여 그것에 대하여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성원으로는 초급반 3~5명, 고급반 1~2명이 매주 토요일 3시에 참여한다. 아띠클럽의 처음 개설 목적은 청년들간의 문화교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클럽 프로그램은 수업으로 구성한 것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서로 간에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아띠들은 코디네이터나 직접 목격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비슷한 또래의 공통된 관심사들을 발견하며 그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공유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과정에서 미얀마의 결혼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반면 한국의 경우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이야기 하면서 연애나 취업에 관한 문제와 같이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나눌 수 있었다.

이는 효과적인 문화 교류의 방법이긴 하나, 일단 언어만을 기본적인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에 대한 의견으로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싶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이 등장하였다.

반면 아직 5번의 만남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은 아띠클럽에 대한 고정적인 틀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또한 동시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가치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서로가 만들어 낼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최빈국 미얀마 '기부는 최강국'

올해 발표된 '세계기부지수'(WGI)에서 가난한 나라 미얀마가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인심 좋은 국가로 꼽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구호재단(CAF)은 최근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금전 기부 ▲봉사활동 ▲낯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등 3가지 기부행동을 평가해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위였던 미얀마가 한 단계 올라 미국과 함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얀마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70달러(약 140만원)로 미국(5만6578달러)과 43배 차이가 난다. 미얀마는 특히 국민의 금전 기부 참여가 91%로 가장 높았다. 미얀마가 높은 기부지수를 보이는 데 대해 CAF는 불교문화가 이유로 꼽았다. 승려가 50만명에 이르는 데다 국민의 불교 성향이 강해 종교적 기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캐나다와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각각 3, 4, 5위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트리니다드토바고(10위)와 케냐(14위), 말레이시아(7위)·스리랑카(9위)·인도네시아(13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0위 내 포함됐다. 반면 세계 최상위권 경제력을 자랑하는 G20(주요 20개국) 중 기부지수 상위 20위에 드는 나라는 5개국뿐이었다. 한국과 일본(90위)을 비롯한 11개국이 50위 안에도 들지 못했으며 중국(128위), 러시아(126위), 터키(128위)는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은 올해 60위로 2년 전 45위보다 크게 뒷걸음질 쳤다. 한국은 낯선 이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86위에 그쳤고 금전 기부는 41위, 봉사활동은 55위로 나타났다.

[출처] = 세계일보

미얀마대학생들, 교육개혁 요구하며 전국시위 경고

미얀마에서 민주화 개혁이 정체됐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대학생들은 현행 교육법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최근 나흘 동안 양곤에서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18일 AP 통신이 전했다. 전버마학생회연합의 표표아웅 사무총장은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60일의 여유를 주겠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는 내년 말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주화 개혁이 정체됐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난 1988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의 시위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성명을 내고 현행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회 결성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9월 교육 정책, 교과 과정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부 각료들로 구성된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학생회 결성을 금지하고, 소수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받는 것을 불허했다. 아웅 사무총장은 "정부 각료들로 구성된 기구가 교육정책, 계획, 교과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연합뉴스

미얀마 의회의장, 총선 전 헌법개정 가능성 배제

미얀마에서 민주화 개혁이 정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 전 헌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9일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슈웨 만 의회의장과 군부 인사들은 최근 잇따라 헌법 개정 가능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슈웨 만 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내년 5월 헌법개정과 관련해 전국적인 국민투표가 시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투표 후 바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작업이 방대해 "이 때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얀마는 내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군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436조,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59조 등 헌법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은 총선 뒤 구성된 의회가 선출하며,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치 여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으며, 영국인 학자와 결혼했던 수치 여사는 영국 국적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헌법 436조는 의회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때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석의 25%가 군부에 할당돼 있어 군부의 동의 없는 사실상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의회 내 군부 대표들은 지난 17일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는 조항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흐데이 나잉 대령은 "헌법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미래를 위해 작성됐다"며 "대통령의 자녀가 외국인이라면, 이는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유엔, 미얀마 로힝야족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으로 핍박을 받는 로힝야족 주민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130만명은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입국자로 간주, 시민권을 주지 않아 거의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을 믿고 있어 미얀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도와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2012년에는 불교도의 공격을 받아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14만명이 집단 거주지역인 라카인주의 임시수용소들에 분산돼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라카인주 임시수용소의 로힝야족 주민들이 겪는 참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 주민에게 "완전한 시민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자발적인 주민등록", 평등한 공직 진출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종전 태도를 바꿔 해결을 모색하도록 국제사회가 가하는 압력의 연장선에 있다.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 넘겨지며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미얀마 측이 요구하면 투표에 부쳐지게 되지만 높은 찬성표가 나온다면 국제사회가 결코 미얀마의 편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연합뉴스

[편집자] 백종석 기자



수업시간에는 뒤에서 친구랑 싸우고 장난감 던지고,
 낮잠시간에는 자라는 잠은 절대로 안자면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유난히 말을 안 듣던 3살짜리 아이가 있었다.
 물론 내말도 안 듣지만 그래도 나를 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드디어 몇 일전 낮잠시간에 누워있는 내 배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미리 이별의 감정을 경험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더 힘들었다.
 분명 몸도 마음도 지치는 과정이었다.
 앞으로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더 반복할 생각을 하니
 점심으로 먹은 밥이 다 올라올 느낌이다.

컵의 물이 반밖에 안남은 것일까, 반이나 남은 것일까?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강물처럼 내 몸을 훑고 지나가는 1분1초의 시간을 붙잡고 싶다.
 활동 다섯 달 중 셋째 달은 느낌이 묘하다.



송다정 djhits1626@hotmail.com

11월은 찰나였다. 양곤에 온 뒤로 가장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낀 한 달이었다. 중간평가를 치르고 보고서를 부랴부랴 만들고 나니 절반이 지나있었고, 방콕으로 비자 트립을 갔다 오니 어느새 말에 접어들어 있었다.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달력을 들여다보면 각 사이트 별로 방문 할 수 있는 횟수를 손가락으로 금방 셀 수 있다. 현재에 충실해야겠지만, '끝' 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남은 나날들도 분명 지금처럼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앞날에 대한 고민이 부쩍 늘었다. 당장 내년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부터 인생에 대한 깊숙한 질문들까지. 마치 말년 병장 시절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때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 시절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확실한 것들이 더 많다. 뭐랄까,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하나 넘은 느낌이다. 이곳에서의 일상과 배움이 이전의 삶과는 너무도 다르고 나라는 인간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기에, 내가 누군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목표 같은 것들이 전부 불확실해진 느낌이다.



그럼에도 미얀마에 와서 분명해진 목표가 하나 있다면, '꼭 미얀마에 다시 오겠다.' 는 것이다. 지금 이곳의 사람들과 풍경들이 너무 좋고, 이곳에서 먹고, 자고, 재밌게 살고 있는 내 모습도 너무 좋다. 훗날 일을 하러오든, 여행을 하러 오든, 홀로 이곳에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한다. 분명 멋진 날들이 되리라. 여튼 이렇게 잘살아도 걱정이 생긴다. 시간이 빠른 건 빠른 것이고,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를 썩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요즘 오가는 길 위에서 Jack Kerouac의 On the Road 를 읽고 있다. 남은 날들이 다음 한 구절 같다면 재밌을 것 같다.

"They danced down the streets like dingedodies, and I shambled after as I've been doing all my life after people who interest me, because the only people for me are the mad ones, the ones who are mad to live, mad to talk, mad to be saved, desirous of everything at the same time, the ones that never yawn or say a commonplace thing, but burn, burn, burn like fabulous yellow roman candles exploding like spiders across the stars and in the middle you see the blue centerlight pop and everybody goes "Awww!"" - Jack Kerouac, On the Road

백종석 odysseus78@naver.com



#1. 잘 살아보세.

11월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빈도가 조금은 줄었고, 고정된 시간표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친구가 생겼다. 안정적인 템포를 가진 일상이 만들어지고 그 생활이 무더질수록 나는 자연스레 나 자신과 팀원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몇 개월간 정신없이 앞만보며 달려오던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고, 그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아침부터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하루를 거의 함께 보낸다. 사소한 어제 오늘 일상이야기부터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기 위해 인생그래프 그리기 같은 시간을 가지며 서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 하기도 하며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팀원들과 함께 지내며 다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다양한 취향과 강한 개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살며 나 또한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양보하는 법을 배웠다.

수용, 사랑 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면서도 때로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단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 순수한 내용 자체 일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가뒀 버리고 수용의 이름으로 본인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논리적 해석을 하거나 감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것이니 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타인을 만나고 유대하고 연대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판단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 않겠는가.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며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나는, 우리들이 몇 개월간을 함께 살아왔건, 앞으로 며칠이 남았건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공동체를 이루는 동력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버벅대며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잘 살아보려고, 타인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2. 깡홀라 마을의 너희들.

혈랑따야 마을의 아띠스쿨에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왔다. 깡홀라 마을에 사는 대 여섯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유난히 나를 좋아해주었다. 깡홀라 아이들은 내 얼굴에 뽀뽀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선명한 어금니 자국을 남겨주기도 하고, 나를 마을의 사원에 데려가 부처상을 구경시켜 주기도 하는 등 늘 나에게 큰 호감을 표현해주었다. 이토록 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이지만, 아띠스쿨이 시작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면 흥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산만하게 뛰어다녔고,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등 사건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팀원들은 아띠스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아이들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유독스레 나를 잘 따르는 아이들을 엄하게 혼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 친한 언니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내탓도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간을 깡홀라 아이들과 씨름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끄찍이 좋아하는 깡홀라 무리의 가장 막내인 남자아이 하나가 혼자 Y의 클리닉으로 찾아왔다. 그때 우리들은 회의중이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 클리닉 안이 아닌 밖에서 놀고 있으라고 말했다. 내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나는 회의장소로 다시 돌아갔고, 그 날 이후로 깡홀라 아이들은 아띠스쿨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깡홀라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자 원래 멤버인 아이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우리들 또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약간은 수월해졌다.

나를 너무나 잘 따랐던, 그리고 내가 정말 이빠했던 아이들인데, 내가 건물에서 쫓아냈던 그날이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는게 이상하고 섭섭했다. 혈랑따야를 갈때마다 마마코코!(코코 언니,누나)하고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고, 다른 인연들이 생겨나며 그 아이들의 얼굴을 잊어가고 있다. 더 늦기전에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만 나는 그 아이들의 집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걸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중이다.

신태정 2002xowjd@daum.net

시간이 필요하오. 그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소? 모든 것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번기회에 실감할 수 있었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에는 좋은 싫든 시간이 필요하며, 무슨 일을 할 때 또한 그 일을 하는 시간과 그 일을 판단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 말이오.

아이들이 본인을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옆집의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고개만 끄떡이며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의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오. 이는 모두가 들이 생각할 수 있소.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 것이라 내 감히 생각하오. 만일 충분한 시간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당장 처한 어려움은 시간이 흐르면 한때의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나 시간은 흐르오. 이곳 미얀마에 온지 1달째에는 시간이 거북이 만치 천천히 흘렀으나, 지금은 벼락이 치는 시간처럼 눈 깜짝할새 지나곤 한다오. 지금도 내 글을 쓰고 있으나 벌써 한 시간이 흘렀소. 시간은 살아 있소. 그 시간을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인다면 시간은 나에게 십년, 이십년 지기 같은 친구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나는 여기서 느낄 수 있다오. 시간이 필요하오.

김정식 jeongsik2da@naver.com





구아 (꺠꺡)

미얀마에서 갖게 된 내 이름이다. 내가 쓰는 철자로는 아무 뜻도 없다. 미얀마 사람들은 특별한 뜻 없이 부르기에 편하고 예쁜 발음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름의 가장 쉬운 예는 한 글자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다. 퓨퓨아웅, 웨웨아웅, 웨웨, 뚜뚜 등이 내가 아는 그런 이름들이다. 권희설이라는 이름을 내가 만난 대부분의 외국인 친구들은 발음하기 힘들어했다. 그건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뭔가 덜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로 줄곧 ‘권’ 이라고 짧게 나를 소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피스쿨 아이들이 권을 ‘구앙’ 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구아’ 로 정해 버렸다. “그건 작은 새총 같은 걸 말하는 거야...” 하며 당황해하는 산드라의 얼굴을 보고 똑같이 당황한 것은 꽤 나중의 일이었다. 산드라는 차라리 ‘궁(숨이라는 뜻)’ 으로 하라며 이름을 바꾸길 권했지만,

그건 보나마나 ‘궁(미얀마 남자들이 자주 씹는 딱딱한 나무. 씹으면 붉은 물이 나와서 입 안 전체가 빨갛게 되고, 조금 알팔팔해진다.)’ 으로 놀림 받을 게 뻔했다. 그런데다가 이미 많은 아이들이 따마 구아(구아 언니), 서야마 구아(구아 선생님) 호칭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팀원들도 구아, 구아바(...)라고 부르고 있어서, 결국 아무 뜻도 없는 나의 철자를 고수하며, 그대로 쓰고 있다. 나는 꽤 마음에 든다.

“현지어 공부는 좀 어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기서 내가 쓰는 말은 총 4가지다. 한국어, 미얀마어, 영어, 그리고 바디랭귀지. 팀원들과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자주 마주치는 Y 스태프들과는 영어+미얀마어로 대화한다. 회의 때 주로 만나는 닥터 따난과 산드라와는 거의 영어로 소통한다. 바디랭귀지는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언제나 동반되지만, 가장 많이 쓸 때는 아마 아피스쿨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얀마어 공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태정이의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11월부터 정식으로 Y 스태프들로부터 미얀마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훈련을 받을 때부터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으니 어느덧 5개월이 넘었다. 우리들의 미얀마어는 아주 서서히 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 글자를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된 아피들이 TV가 딸린 카페에 차를 한 잔 마시러 갈 때가 있다. TV에서는 주로 외국 액션 영화를 방영하고 있다. 우리가 자막을 보고 ‘응아(나)...’ 읽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밍(당신)...’ 읽으면 또 넘어가고 하는 식이다. 길가 카페에서 외국인 5명이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려 앉아 ‘응아 응아 응아...’ 하며 가상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미얀마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똑같고 아주 어려운 발음이 없어서 좋다. 자주 쓰는 동사들 중에는 시디(있다/가지다), 또아디(가다), 라디(오다) 처럼 한두 글자인 경우가 많아서 외우기도 편하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들도 있다. 미얀마어에는 성조가 3가지 있는데,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다 똑같이 들린다. 또, 모음들이 합쳐져서 나오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발음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ㄱ’와 ‘ㅏ’를 합치면 ‘과’이다. 그렇지만 미얀마어에서는 ‘꺠’와 ‘꺡’가 만나서 ‘꺢’가 된다. 이해 불가능! 외우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쓰는 것과 읽는 것 사이에 발음차가 있어서 헷갈린다. ‘물 한 병’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 텃쿠’인데, 이렇게 말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다. ‘예 드쿠’라고 해야 한다.미얀마어를 배우면서 나는 한국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웬만하면 모든 쌍자음과 받침을 정확히 발음하고, 음절마다 끊어 말하는 한국어 사용자인 나에게는 미얀마 사람들의 말소리가 숨 멎치 굴러가듯 두리뭉실하고 불명확하게 들린다.

그럼에도 현지어 공부를 그만할 수 없는 것은 현지인들과 현지어로 소통할 때 내가 그들과 훨씬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외국인만 보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헬로우’ 대신에 ‘밍글라바’라고 인사만 해도 보다 친밀해지는 기분이다. 또한 활동 사이트들에서 양곤팀은 대부분 유치원~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졸졸졸 따라오며 종알 종알 말을 건네는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려면 현지어가 필요하다. ‘아, 나도 정말 네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진짜 알아듣고 싶다!’ 눈치껏 반응하는 스킬을 갖추기 전까지는 저런 답답한 마음에 늘 궁궁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피 스킨이나 웨피따 학교의 아이들을 만나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곤 할 때면 어느새 미얀마어+한국어+바디랭귀지를 섞어서 구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 세 가지의 조합은 그 상황에 속한 나와 아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재미있다.

권희설 noonseol@gmail.com



[#별첨 인터뷰 전문] 활동 사이트 4곳 → 2곳 → 3곳 변경한 사연 나는, 왜, 여기에?

Q. 활동을 시작한 9월, 4곳의 사이트들에 다니기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곳이라는 사이트의 수는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석) 첫 팀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번 가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도를 해보는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정) 가봐. 이런 느낌.

(종석) 4개는 많아요. 그냥 하루만 가면 그날 준비한 것만 딱 하고 빠지는 느낌인데, 하루가 더 있으면 잉여시간에 우리가 뭘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적고, 하루로는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정식) 동감합니다. 본인은 4곳에 가는 교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4곳 간다고 해도 교통시간이 짧으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갔다 오는데 4시간여가 걸리기 때문에 활동시간의 제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종석 형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정)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몰라서.

Q. 4곳의 사이트를 모두 가는 것에 어떠한 장점과 한계점이 있나요?

(종석) 좋았던 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랑 우리가 하는 활동이 되게 다양해져서 좋았어요. 애들도 여러 군데에서 만나고.

(정식) 하지만 항상 단기적으로 하루에 한 곳 이틀에 두 곳 삼일에 세 곳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나 피곤한 육체를 가다듬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정신 사나운 9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았던 것은 많은 곳을 갈 수 있어서 다양한 곳을 갈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아쉬워요.

(다정) 사이트별로 다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같은 널서리스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게 비교되기도 했고, 환경부터 아이들이 받는 교육,교구들 그리고 아이들이 뭘 깔고 자는지부터 너무 다 달라서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너무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다르고. 마을마다 다 욕심이 생기는 게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고, (사이트가) 너무 멀다보니까 사실 가는 데 지치고 가서 (활동) 좀 하면 더 지치고 좋긴 하지만 항상 집에 가고 싶은 그 애매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집에 오면 다음날 할 거 짜야하니까 항상 좋았던 것들이 밀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한 달이 지나가니까 (사이트당) 4번만 하면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양곤에서의 하루는 여기서 정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양곤에서 활동하는 날이 월요일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활동해도 쉬는 느낌이 나요. 쉬는 날 같고, 뭔가 이동 시간에 우리가 많은 걸 뺐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태정) 저는 저희가 10월에 활동 계획을 짜면서 각각 사이트마다 목적을 정했었는데 그 사이트들에 가면서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뭘 더 준비를 해야 하고 뭘 봐야하고, 우리가 계속 마을을 알아가야 한다는데. 마 오피라바를 예로 들자면, 가서 우리가 하는 건 유아들을 만나고 널서리 안에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을 알아가기에 적합한 건지 의구심이 생겼어요.

매 사이트 갈 때마다 제대로 하는 건지 계속 의구심이 들고요. 사이트는 많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들어는 가야겠고.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니까요. 애들이랑 놀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학부모랑 확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흘랑따야 가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가서 주민들을 만난다고해서 베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뭔가 진행하고 싶은데 속도가 더더요. 왜냐면 일주일에 가는 사이트가 너무 많거든요.

(종석) 그 속도가 너무 더더서 활동 목적이랑 괴리가 있었다?

(태정) 네

Q. 다른 팀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활동 사이트가 2~3곳 이상인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양곤팀이 사이트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석)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마을을 너무 못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흘랑따야, 쉼피따) 이틀 이틀 가고, 양곤 널서리나 북오피라바는 우리가 빠져도 지장이 없겠다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태정) 꾸준한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때였어요. 마을을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다정) 그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양곤은 정말 우리가 필요가... 물론 우리가 곰 세 마리 같은 울동, 그들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잘 하시는 선생님들과 그 울동시간만 빼면 우리가 딱히 하는 일이 없었고요, 그래서 양곤은 너무 편하고 좋고 익숙하고 아이들도 귀엽지만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마 오피라바도 너무 예쁘고 그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뭔가 왜 그랬지? 마을... 마을.

(종석) 마을에서 관을 벌이기가 한계가 있었어요.

(다정) 공간?

(종석) 공간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다보니까 기반이 없었지.

(다정) 그리고 마을도 사실 쉼피따가 많이 끌렸죠.

Q. 왜 마을로 나가고 싶으셨나요?

(종석) 뭔가 그게 환상 같은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대도시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 산다는 그런... 다른 팀을 보면 마을에서 살고 옥닥복닥 지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마을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식) 우리가 그때 (사이트) 바꾸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아이들만 본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요. 우리가 여기 양곤에 아이들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너무 아이들만 보니까 짜증도 났었고. 그러면서 (종석)형이 말했듯이 복닥복닥한 감정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마을로 나가 보자,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마 오피라바보다는 쉼피따가 마을 사람들하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만 보자면 쉼피따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쉼피따로 바꿨습니다.

(종석) 마을 자체도 마 오피라바는 약간 도시의 느낌이 들어요. 위치도 양곤 중심부 쪽에 속해있고요. 쉼피따나 흘랑따야는 멀리 가서 나오는 변두리예요.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는 마을의 모습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태정)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됐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유아들만 만나고, 그게 전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을지도 그리기 마을 알아가기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종석)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을 교육 시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만나보는 것도 있죠. 우리가 선생이나 보조의 입장이 아니라 마을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태정) 맞아 주민으로서.

Q. 처음의 결정은 조금 전 말씀해주셨다시피 흘랑따야 이틀, 쉼피따 이틀씩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다정) 거기서 허락을 받았어요. 쉼피따에서 클리닉을 안 쓰니까 거기를 써도 된다고. 그러면 낮에 학교를 안 간다거나 하는 청년들을, 만약 만날 수 있고 모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죠. 자리가 있으니까 일단 왔다갔다 하면서 재미있을 것 같았고, 마 오꼴라바는 널서리 안에 있는 작은 방이 아니면 우리가 엉덩이 붙일 곳이 없거든요. 사실 수업시간엔 눈치 보여서 애들이 엄청 쫓아와서 선생님들이 밖에서(아이들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거든요. 우리가 한다면 사실 그 널서리 옆 건물 공사는 이번에 흘랑따야 보수공사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거기다 공사한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거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걸 우리는 몰랐죠. 산드라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부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런 거죠.

(북오꼴라바에서) 한다면 널서리 스쿨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간 공간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그렇죠... 역시나 우리가 클래스를 여는 느낌. 친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공간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종석) 그거는 좀 주관적인 걸 수 있는데, 쉼피따는 마을이 이렇게 걸어나면은 마을 사람들이 되게 친근하게 해주거든요. 되게 먼저 인사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북오꼴라바는 물론 친근하게 해주시는 분은 있지만은 양곤 걸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다운타운, 도시 같은.

(정식) 쉼피따가 방금 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하고 만날 때 더 즐거운 거리가 있었고, 같이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대해줄 때 서로 재미있었고 북오꼴라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아이들을 베이스로 해서 아이들 학부모 만나야 하는 반면, 쉼피따는 학교 바로 나가서 인사하면 만나지는 거고. 그렇죠.

(다정) 사실 북오꼴라바는 한 번 걸어보면 느끼겠지만 다 집이 크고 울타리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길거리에 앉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쉼피따는 길가에 사람들이 많고요.

(종석) 가구수도 차이가 나요. 마 오꼴라바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커버가 안돼요. 반면 쉼피따는 가구 수가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가구 수거든요. 그것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태정) 애초에 활동 목표를 정할 때에도 활동 할 때에도 다들 조금씩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마을을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계속 들어가면서 느꼈어요.

Q. 양곤팀의 활동 목적과 마을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다정) 저희는 첫째 팀이니까요. 저희를 (마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사이트가 어디든간에 가서 뭔가를 누구와 하려면 우리를 알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단계라서요.

(종석) 마을 주민이 돼서 살아본다는 게 활동의 지향점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약간 바람,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마을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게 있고. 그게 안 되니까 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정식) 저는 마을 주민처럼 살고 싶다는 거는 한 달 쯤 지난 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9월은 돌아다니기만 하고, 양곤에서는 저희가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보는 직원들이랑 인사하는 정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어딜 가도 좋으니 마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태정) 저도 환상이 있었지요.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저는 한 번 떨어졌었기 때문에 (웃음). 어차피 여기 미얀마에 오게 된 거 더 많은 사람 만나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는 양곤Y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 마을로 가야 한단 말이죠. 한계를 느낀 거죠. 라온아띠 프로그램에 대한 환상도 채우고 싶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식)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했던 이유는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Q. 미얀마에서 마을 살이, 옆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을 때 이웃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종석) 한국은 고립된 섬이죠.

(정식) 그렇죠. 그리고 제 행동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는) 정반대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옆집은 다 불 꺼져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집엔 가지 않지만 피씨방 가는 느낌이었어요. 고양이 있는 피씨방 가는 느낌. 그래서 나름 이웃집한테 떡도 돌리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죠.

(종석) 그냥 대학촌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대학 사회 자체가 혼자 고립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혼자 취업 준비한다고 잠수 타고...

(다정) 왜 잠수 타야 돼?

(종석)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동아리 활동 하지 않는 이상 학교 혼자 다니고. 저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대학에는. 같은 과 동기라고 해도 아는 척만 하는 사이고. 그리고 주거도 약간 그래요. 주거도 대학촌이 고시원도 많고 원룸에 그런데는 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 데잖아요. 그런 곳에 제가 누워있어서 눈을 뜨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허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갔는데.

(정식) 고양이를 키우시오.

(종석) 굳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고립이 될 수 있는 곳이 좀 대학사회라는 곳인 것 같아요. 약속 안 잡으면 밥 혼자 먹어야 되고.

(태정)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분위기에요.

(종석) 대학에서 제일 큰 게 경쟁이잖아요. 학점 따려고 열 올리고 다들. 혼자 박혀서 경쟁을 하는 거죠.

(다정) 저는 한국에서 두 가지의 생활을 했어요. 처음 3년은 혼자 자취를 했어요. 혼자 자취를 했는데 그 3년 동안 저는 옆집 이쪽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산다는 것과, 또 옆집 아저씨는 새벽 샤워를 좋아한다는 거 이외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2013년부터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줌마는 대단해요. 대한민국 아줌마는 대단해. 엄마의 힘으로 앞집 아줌마 아저씨와 친해지고 엄마가 복덕방 이모를 사귀 이후로 딸기 부동산입니다. 거기 가면 진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고 엄마는 자꾸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딸기 부동산에서 이거 가져와봐 하면 할 수 없이 가면 인사도 하고 '아 네 제가 송다정입니다.' 그리고 동생 학교를 데리러 가면 온갖 아줌마들이 말을 걸어요. 전 몰라요 그분들을. 이렇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실 어색하기는 한데, 너무 좋아요. 담배 필 때만 빼면요.(웃음) 동네 슈퍼가도 다정아 안녕 이렇게 해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외국 가도, 몰라요. 불과 1년 반밖에 안 살았는데 신기한 일인 거죠.

Q. 마 오갈라바를 선호한 아씨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아씨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결정과 어떻게 타협했는지도요.
 (다정) (웃음) 사실, 북오갈라바를 더 가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사이트 하나를 빼는 게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게, 마을도 만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이미 아이들과 너무 정이 들어버린 상황이었고, 사실 그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3개월 지난 시점에 1월에는 어떤 사이트도 몇 번 못 간다는 가정 하에 몇 번 안 남았는데 굳이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게 큰 부담이기도 했고요. 그랬음에도 팀원들의 의견을 따랐던 이유는 분명히 저들이 했던 말들을 저도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마을도 더 보고 싶었고, 그러기에는 쉼피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뭐 어느 한 군데가 나쁜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기울었던 것뿐인데, 그게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지 혼돈도 왔었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항상 플렉서블하니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Q. 다들 사이트들에 정이 많이 드셨나보네요.

(태정) 네.

(다정) 사실 다들 보였어요. 저 사람들도 냉혈인간들처럼 쉼피따로 달려갔던 게 아니고, 다들 발을 질질 끌면서 쉼피따로 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정식) 쉼피따 가는 당일엔, 가지말까. 마 오갈라바 갈까 그랬죠.

(종석) 그리고 난 뒤를 돌아봤지.

(다정)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쉼피따를 가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Q. 최근에 사이트를 마 오갈라바 1일, 쉼피따 1일로 재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석) 시간에 비해서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안 보였어요. 기차를 9시에 타면 12시쯤 쉼피따에 도착하고 이제 밴이 (화요일에는) 안 오니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적어도 3시 반? 3시 그쯤에는 쉼피따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1월은 약간 그 빠지는 것도 많으니까 한 달 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리고 마 오갈라바를 너무 후다닥 나왔다는 찝찝함. 저는 그 두 가지였습시다.

(태정) 마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책을 만들든 맵핑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화요일에 함께 걸은 게 처음이었는데 마을이 몇 개 있고, 집이 몇 개 있고, 이런 거를 그때 알았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더 답이 없었어요.

(정식) 그리고 쉼피따에선 아직 우리가 욕심을 내서 뭘 벌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판을 벌리진 않았기 때문에 판을 벌릴 여지가 있다면 그거는 시간이 넉넉한 다음 기수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정) 적극적으로 다음 기수에게 권합니다.(웃음) 해보세요. 사실 기차도 타다보면 꽤 낭만적이라는. 처음에 기차타고 기겁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종석) 엉덩이에 뽕 들어간 자전거 수트 챙기면 좋겠다.

(정식) 아니면 할머니들이 쓰시는 엉덩이 벽돌 방석을 가져오라고.

(다정) 그게 뭐야?

(정식) 이렇게 탁 (앉아서) 농사짓다가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소. 그러면 (방석이 엉덩이에) 붙어 있는 것이요. 벨트처럼 차는 것이요. 아 그리고 기차 탈 때 베개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소. 땀에 젖 베개에서 냄새가 나오.

(종석) 그래서 우리 방 베개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정식) 그렇소. 그래서 난 안 배요. (웃음)

(다정) 종석이는 지금까지 정식이 엉덩이 냄새 맡으면서 잠.

(종석) 어쩐지 너무 꿈자리가 사납더라.

(태정) 쉼피따가 마을에 대한 환상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해봤자 초등학교 교사로 가는 거밖에 할 수 없지만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다음 기수들이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식)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종석) 거기 살면 재미있겠다.

(다정) 근데 거기서 교사 말고 저희 청소도 했어요. 많이 깨끗해졌죠.

Q. 각 팀원별로 좋아하는 사이트 1위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식) 저는 쉼피따가 제일 좋아요. 스님의 따스한 손길로 제 마음을 울렸어요.

(다정) 스님이 좋아서 쉼피따가 좋단?

(정식) 스님도 좋고, 그리고 우리 3학년반 아이들이 참 착해요. 그리고 쉼피따에는 아저씨들이 많죠. 매우 많은 남자 아저씨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를 드러내면서 웃어주세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종석) 나는 흘랑따야. 거기 그냥 제일 많이 가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널서리 아이들도 귀엽고, 애프터스쿨 아이들도 귀엽고. 우웡토 할아버지도 좋고. 근데 아이들이 베스트인데는 마 오갈라바지. 마 오갈라바는 한 2등.

(태정) 저는 원래는 항상 마 오갈라바가 1위였는데 요즘은 쉼피따가 너무 좋아요. 그 제가 그 거시기 뭐야 1학년 반 선생님이었는데 학급 로테이션이 되면서 4학년 반 (담당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은 시험대비 수업 때문에 제가 당장은 수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반을 들어가면서 학습보조도 하고 사진도 찍는데 아이들이마다 학년마다 다른 것들이 보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쉼피따 초등학교가 보이고. 그냥 뭔가 다른 입장에서 못 봤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좀 신선해요. 그래서 전 지금 쉼피따가 좋아지고 있어요.

(다정) 전 마 오갈라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우리가 마을 사람을 만나고 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긴 그냥 이상하게 찻집부터 이렇게 그 널서리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가다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꿈 파는 아줌마 있고 그때 밍글라바 하고 좀 더 가면 애들이 와와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도 막 신나면서 너무 좋아요. 그때 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좋아요. 다른 사이트들도 좋은 건 많죠. 쉼피따는 기차가 너무 좋고, 기차타고 가는 시간이 너무 좋고, 요즘 기차에서 자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태정) 헐 난 점점 더 자는데.

(다정) 그리고 흘랑따야는 우웡토 할아버지가 너무 좋고요.

(정식)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Q. 어떤 순간에 자신이 '마을에서 살고 있구나'하고 느끼나요?

(다정) 저는 그 흘랑따야에서 우리 건물 바로 옆에 쪼소모라는 친구와 그 아이 동생 에잉츄메. 그 집을 그 집과의 형성된 그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와이 건물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밥을 점심에 먹죠 그럼 막 저기서 쪼소모가 불러요, 아 에잉츄메 그러면 에잉츄메 보고 아주머니 샴워하시다가, 에잉츄메 데려다 주시고 그 순간.

(종석) 저는 흘랑따야에서 가끔 산책을 나가요. 우리 다 끝나고 시간 남으면 나가서 마을 천천히 걸으면은 사람들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공 차고 있고 오리 지나가고 그런 때 나는 아 여기 속해있다는 느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식) 저도 형님과 비슷해요. 걸어다닐 때 사람들이 3초 이상 우리를 쳐다보지 않아요. 또 왔네? 이런 눈이에요. 아주 좋아요.

(태정)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봐주고 먼저 인사해줄 때. 저는 흘랑따야 갔을 때 흘랑따야 친구들이 아 코코 내려와 그래서 막 내려갔을 때 그 친구들 중 막내가 불에다 뽀뽀를 엄청 많이 해준단 말이죠.

(종석) 사원 끌려간 날?

(태정) 그때뿐만 아니라 저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웃어주고 그럴 때 내가 여기서 살고 있긴 하구나. 쉼베따 애들 집 데려다준다고 먼 길을 집까지 걸어가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뭐라 해요. 걸어가면서 그림자 지는 걸 보면서 뭐라뭐라 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손을 잡고 그림자 보면서 걸어가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 한국 가면 그 친구는 없거든요. 그 친구는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만났거든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런 거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Q. 비교적 한국에서는 마을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 와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미얀마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태정)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 때문에.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저를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가고 안 친한 척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을 안에 살고 있고 마을 안에 살고 있다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약간 한국에 있을 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느껴보고 싶었어요. 근데 반대로, 저한테 잘 모르는 옆집에 새로 이사가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소문으로 그리고 저한테 먼저 친절하게 말을 걸고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 옆집 아줌마가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던 말이에요. 그 상황에 물이 들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고. 더 친해질 가능성이 없고. 그런 걸 전 여기서 채워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 받고 사랑 주고 사는 거.

(종석)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고립된 게 그게 여기 와서 연결된 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한국대로는 뭔가 그렇게 살았어요. 라온아띠를 와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의를 듣고 케이스를 접하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이 좀 궁금해지고 좀 호감도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마을 살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식) 원래는 그 그냥 막연한 환상이 있죠. 이웃에 대한 환상. 같이 사는 거에 대한 환상. 더불어 사는 삶. 그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보듯이 (이곳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고 찾기 힘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죠. 환상은 있죠. 잘 살고 싶다는데 대한. 그게 새로운 곳에서 반 강제든 자의든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만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마을에서 살아보면 좋겠다. 밥도 나눠먹고 내가 꿈꾸던 이웃 간의 일상적 생활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은 막연한 환상이었다면 여기 와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 더 구체적 환상이 됐어요. 5개월이면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 옆집 사람에게 대하듯이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고 싶기 때문에.

Q. 다정 아씨는 다른 팀원들에 비해 마을 안으로 뺏어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덜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정)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싫다는 건 아닌데, 싫은 건 아닌데 제 말은 싫다는 건 마을 속에서 복닥복닥 거리면서 사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어차피 같이 제가 마을에 살 수 없다는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 어쩔 수 없는 방문잔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긴 하잖아요 뭘 하든.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인데, 첫 기수로서 너무 왜냐면 마을에 들어간다는 작업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단 시간 안에 어차피 약간 포기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걸 놓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친다는 건 약간 5개월 동안 아이들을 만나도 똑같이 미얀마 사람들 만나는 거고 선생님들하고 친해져도 그것도 미얀마 사람을 만나는 거고 전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막 굳이 아직 너무 낯선 우리가 그들 사이에 녹아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저한테 주어진 거에 집중하는 것도 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이었고. 그게 선생님이었고, 직원들이었고. 욕심은 항상 있죠. 욕심은 있지만. 그런 거를 하면서 놓치는 게 싫었어요.

Q. 마을 살이에 대한 욕심, 호감 혹은 환상,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들이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태정) 좀 저는 사람 본연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글썽 어떻게 보면 제가 행동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 나름이고,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여기서 살다 간 거를요. 저는 애들이랑 손잡고 걸어가면서 말 몇 번 나누고 이런 데서 찌릿하게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 열릴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근데 다른 팀원은 혼자 걸어가면서 보면서 아 이런 걸 느낀다는 데,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 어떻게 해석할지 다들 기대되네요.

(정식) 그럴 것 같아요. 여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죠. 거기는 거기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여기서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 그런 거를 여기서 한 번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기억인 거라고 생각해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상적인 거를 사람들은 꿈을 꾸면 만들어보려고 시도는 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포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갖고 있던 이상들을 한국에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그 비스무리 한 거를 만들어보려고 하겠죠. 저는 그럴 것 같고요. 방법들은 자기들이 찾아야 할 과제이기도 한 거죠. 라온아띠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사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 보고 돌아가서 더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후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그 방법을 사용할 지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근데 돌아가서도 시도는 할 것 같아요 다들.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을 거고.